

항공운송

2017년 7월 전국공항통계

■ 항공여객: 중국 노선을 제외하면 10.4% 성장했다

2017년 7월 전국공항 항공여객수송량은 945.1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했다. 이는 한-중간 냉각기가 지속되면서 중국노선 여객수가 크게(92.6만명)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국을 제외한 전국공항 여객수송량은 832.7만명으로 YoY +10.4% 증가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내 LCC들의 경우 이미 중국노선 운항편을 수요가 좋은 일본과 동남아시아로 변경했기 때문에 3Q17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LCC들의 주력 노선인 일본, 동남아시아로 수요가 몰리면서 3Q17에도 2Q17과 같은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FSC도 이미 지난 4월부터 중국 운항 편수를 최소화하고 규모가 작은 비행기로 대체해 중국 노선 여객수 감소가 3Q17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 활황기가 이어지는 일본/동남아 노선

지난 7월 일본 노선과 동남아 노선의 여객수는 각각 163.4만명(YoY +27.9%), 177.3만명(YoY +17.6%)으로 두 노선 모두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중 관계 냉각기가 이어지면서 국내 여객 수요가 중국 대신 일본과 동남아를 선택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과 동남아가 주력노선인 LCC들의 실적은 3Q17에도 YoY 성장할 것으로 판단한다.

■ 항공화물: 3Q17 출발도 좋다

2017년 7 전국공항 항공화물 물동량은 31.0만톤(YoY +3.3%)을 기록했다. 미국의 TV, 컴퓨터 소비금액 증가율 및 전자제품 수입액 증가율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3Q17에도 긍정적인 항공화물시장 영업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alyst 하준영

(2122-9213)

jjha@hi-i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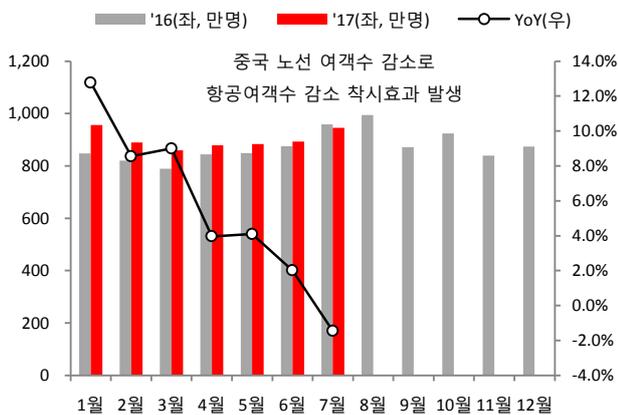
항공여객: 중국 노선을 제외하면 10.4% 성장했다

2017년 7월 전국공항 항공여객수송량은 945.1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했다. 이는 한-중간 냉각기가 지속되면서 중국노선 여객수가 크게(92.6만명)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국을 제외한 전국공항 여객수송량은 832.7만명으로 YoY +10.4% 증가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내 LCC들의 경우 이미 중국노선 운항편을 수요가 좋은 일본과 동남아시아로 변경했기 때문에 3Q17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LCC들의 주력 노선인 일본, 동남아시아로 수요가 몰리면서 3Q17에도 2Q17과 같은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FSC도 이미 지난 4월부터 중국 운항 편수를 최소화하고 규모가 작은 비행기로 대체해 중국 노선 여객수 감소가 3Q17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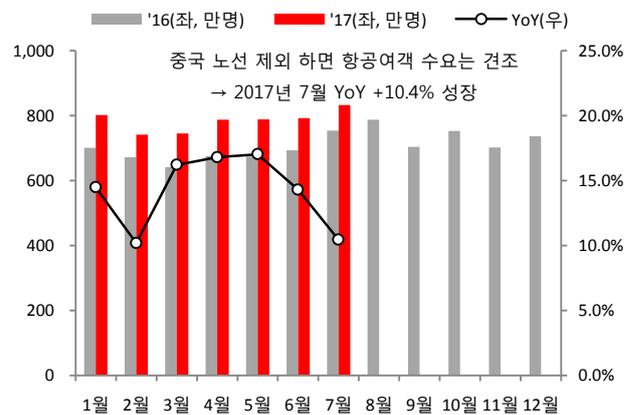
장거리 국제선 여객수는 YoY 12.0% 성장하면서 2017년들어 매 월 YoY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했다. 지난 7월 장거리국제선 여객수는 150.0만명(YoY +12.0%), 단거리국제선(일본, 중국, 동북아(홍콩, 마카오), 동남아) 여객수는 511.9만명(YoY -5.7%)을 기록했다. 국내선 여객수는 283.1만명(YoY +0.3%)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전국공항 항공여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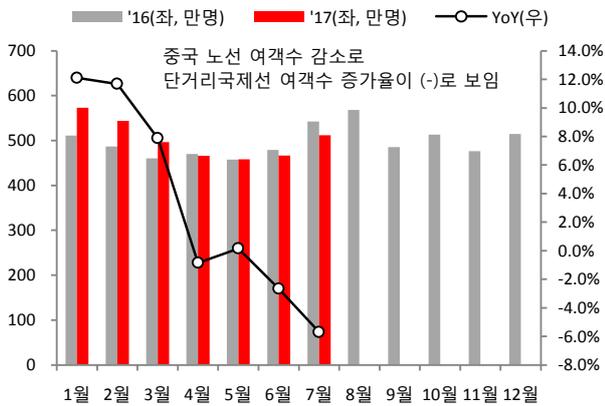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2> 중국 노선 제외한 전국공항 항공여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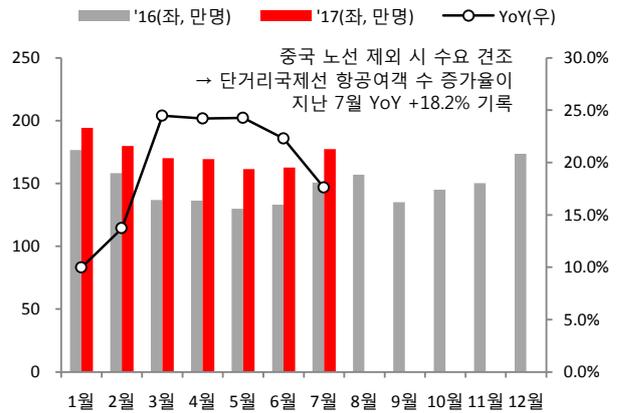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3> 단거리국제선 항공여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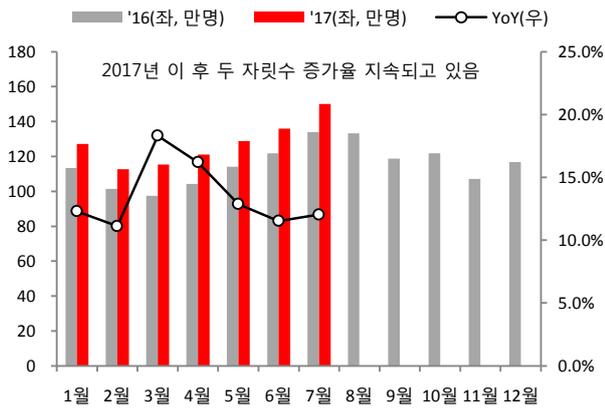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4> 중국 노선 제외한 단거리국제선 항공여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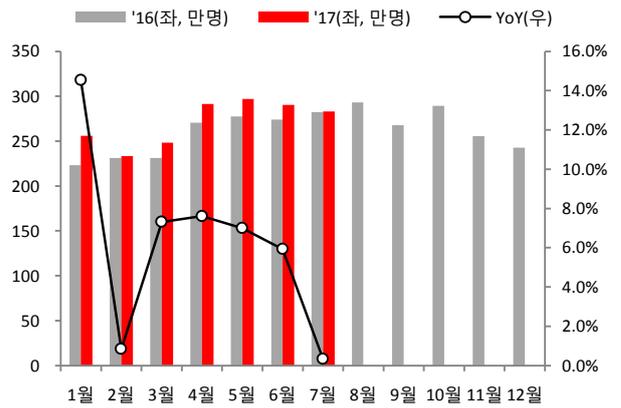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5> 장거리국제선 항공여객 추이



자료: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6> 국내선 항공여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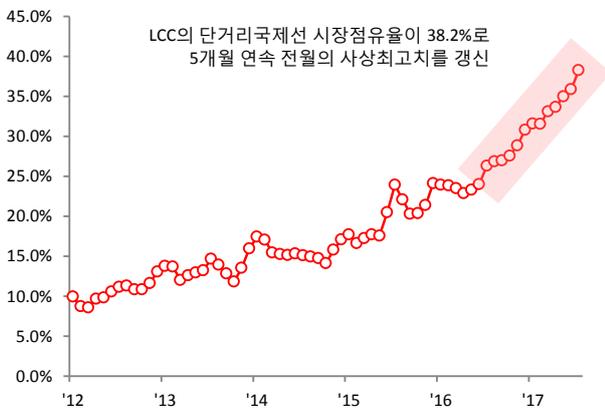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하이투자증권

LCC 단거리 국제선 점유율 38.2%로 대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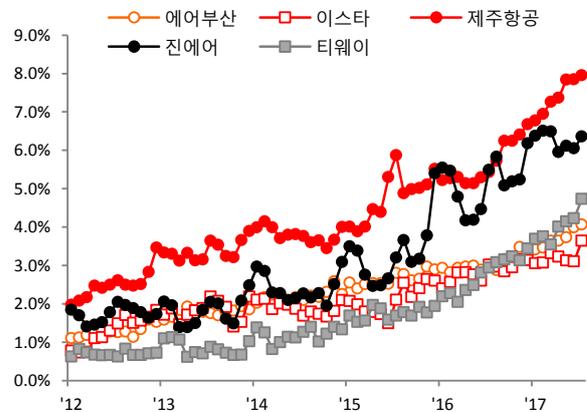
국내 6개 LCC업체들의 지난 7월 항공여객수송량은 341,0만명(YoY +16.0%)을 기록했다. 2017년 5월 LCC 6개 업체의 국내선 시장점유율은 55.9%로 전월 대비 0.4%p 상승했다. 단거리국제선 시장점유율은 38.2%로 5개월 연속 전월의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40%에 육박했다.

<그림 7> 단거리국제선 LCC 시장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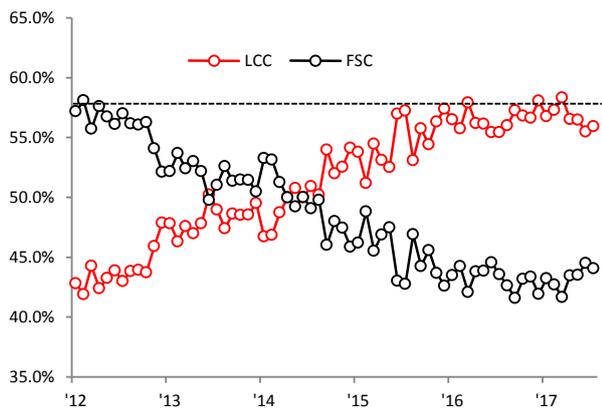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8> LCC 업체별 국제선 시장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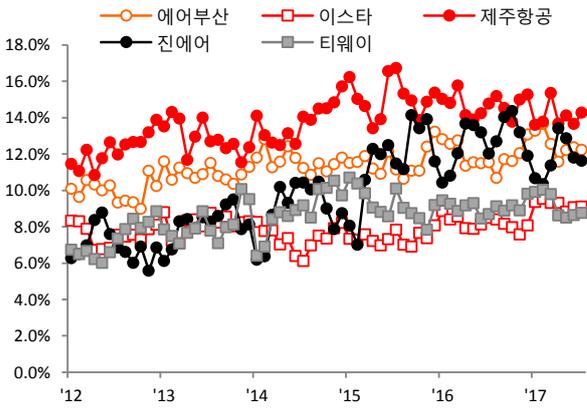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9> 국내선 시장점유율 추이



자료: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10> LCC 업체별 국내선 시장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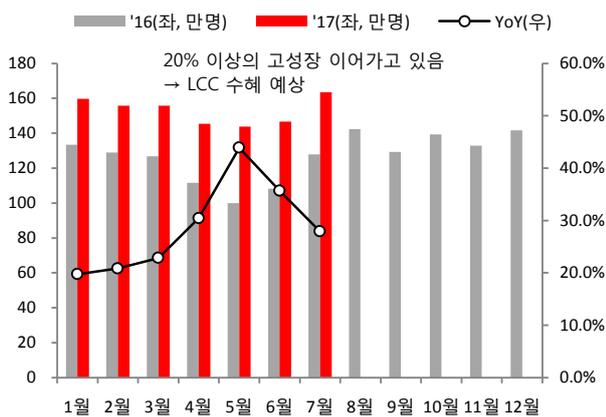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하이투자증권

활황기가 이어지는 일본/동남아 노선

지난 7월 일본 노선과 동남아 노선의 여객수는 각각 163.4만명(YoY +27.9%), 177.3만명(YoY +17.6%)으로 두 노선 모두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중 관계 냉각기가 이어지면서 국내 여객 수요가 중국 대신 일본과 동남아를 선택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과 동남아가 주력노선인 LCC들의 실적은 3Q17에도 YoY 성장할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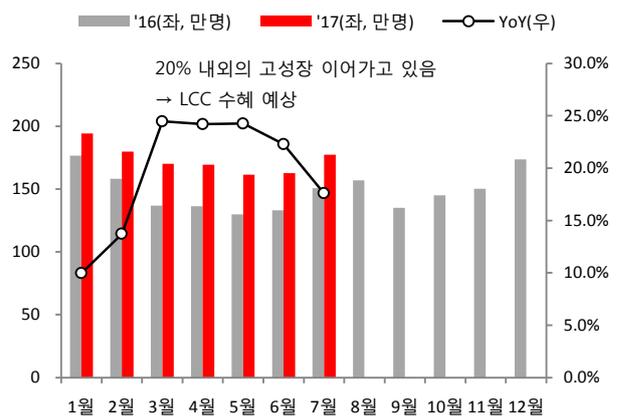
중국노선의 지난 7월 여객수는 112.4만명(YoY -45.2%)으로 YoY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림 11> 일본노선 항공여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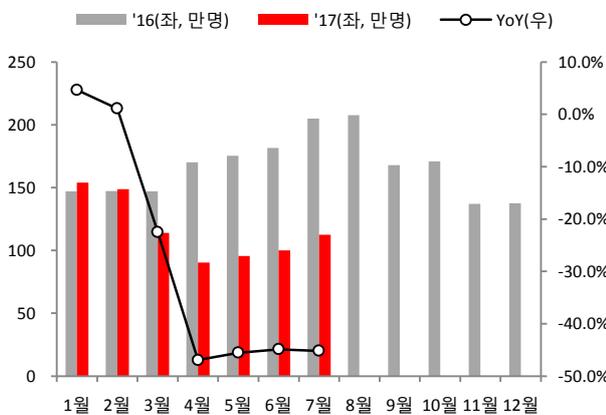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12> 동남아노선 항공여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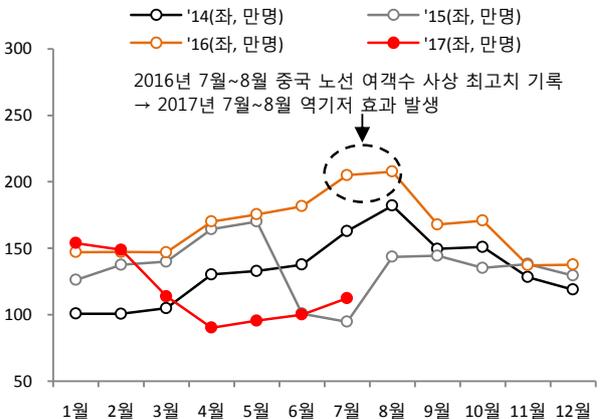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13> 중국노선 항공여객 추이



자료: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14> 연도별 중국노선 항공여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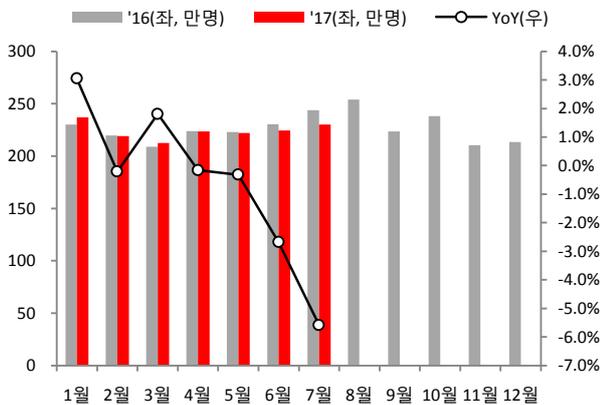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하이투자증권

항공사별 항공여객: LCC 고성장 지속

국내 6개 LCC업체들의 지난 7월 항공여객수송량은 341.0만명(YoY +16.0%)을 기록하며 고성장을 이어갔다. LCC 업체별로 살펴보면 제주항공 93.0만명(YoY +18.6%), 진에어 75.0만명(YoY +5.5%), 에어부산 61.5만명(YoY +16.1%), 이스타항공 49.8만명(YoY +12.5%), 티웨이항공 56.1만명(YoY +26.4%)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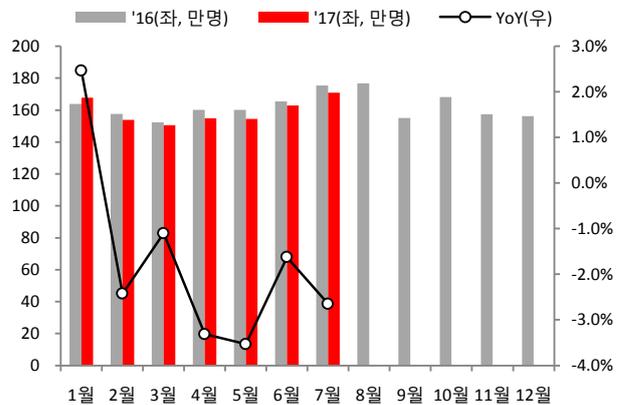
FSC의 지난 7월 항공여객수는 대한항공 230.2만명(YoY -5.6%), 아시아나항공 170.8만명(YoY -2.7%)을 기록해 YoY 역성장했다. 중국 노선 항공여객수 감소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림 15> 대한항공 항공여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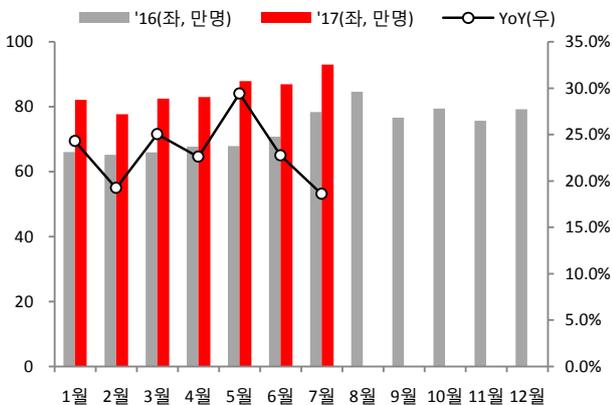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16> 아시아나항공 항공여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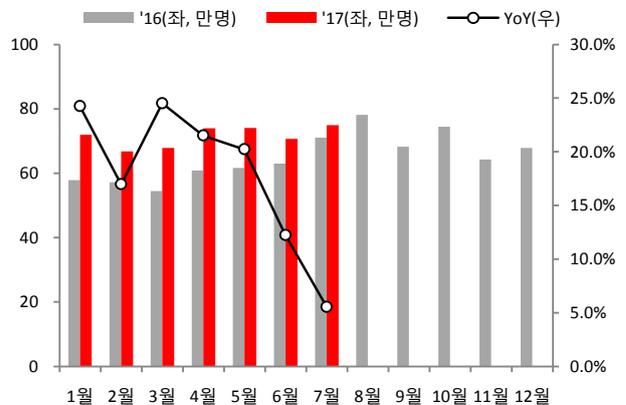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17> 제주항공 항공여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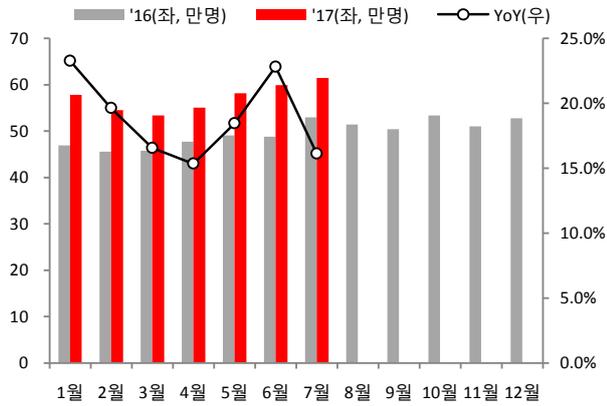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18> 진에어 항공여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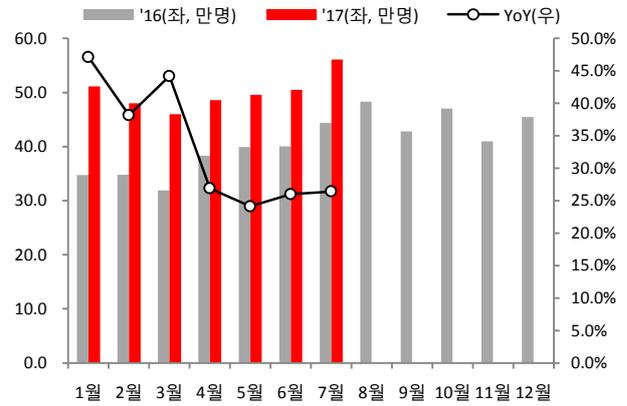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19> 에어부산 항공여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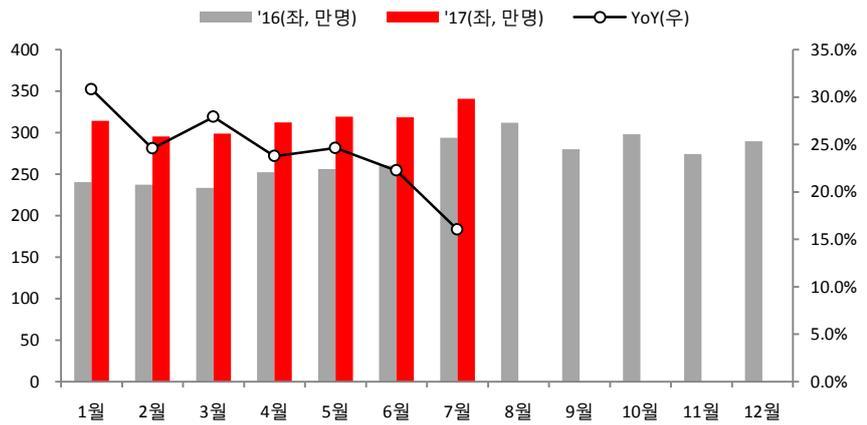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20> 티웨이항공 항공여객 추이



자료: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21> 국내 LCC 6 개사 항공여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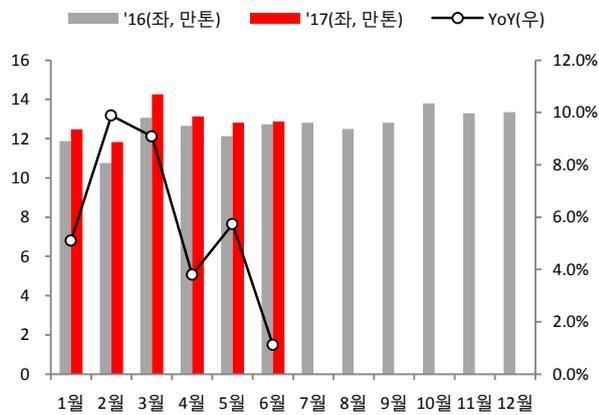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하이투자증권

항공화물: 3Q17 출발도 좋다

2017년 7 전국공항 항공화물 물동량은 31.0만톤(YoY +3.3%)을 기록했다. 업체별 항공화물물동량은 대한항공 13.4만톤(YoY +4.6%), 아시아나항공 6.8만톤(YoY 0.0%)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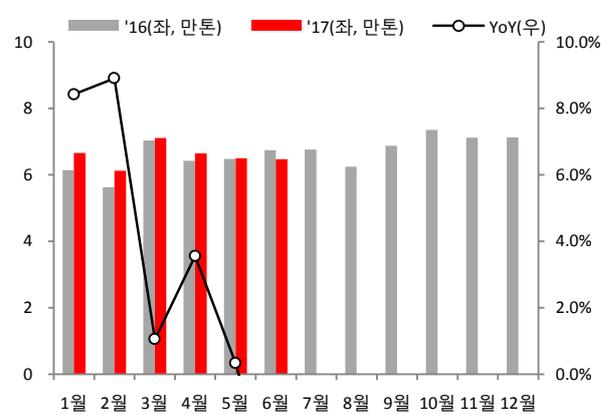
미국의 TV, 컴퓨터 소비금액 증가율 및 전자제품 수입액 증가율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3Q17에도 긍정적인 항공화물시장 영업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2> 대한항공 항공화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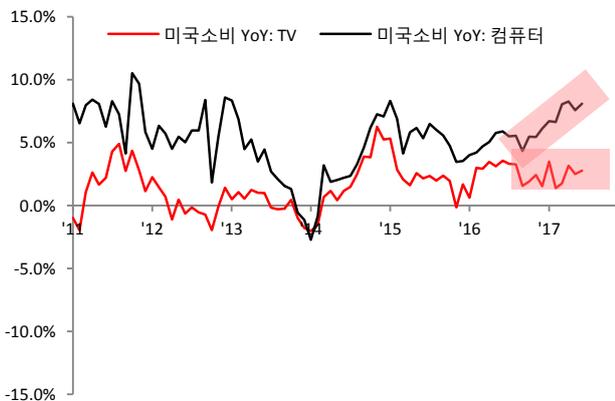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23> 아시아나항공 항공화물 추이



자료: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24> 미국 TV, 컴퓨터 소비금액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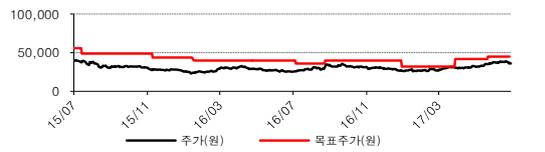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하이투자증권

<그림 25> 미국 전자제품 수입액 증가율 추이



자료: 미국 상무부, 하이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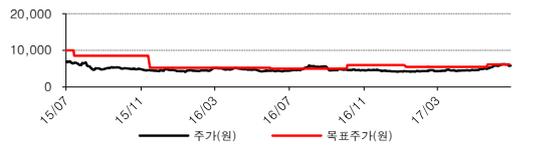
대한항공(003490)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추이

의견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2017-08-07	Buy	45,000
2017-05-30	Buy	45,000
2017-04-05	Buy	42,000
2017-01-06	Buy	32,000
2016-08-31	Buy	40,000
2016-07-13	Buy	3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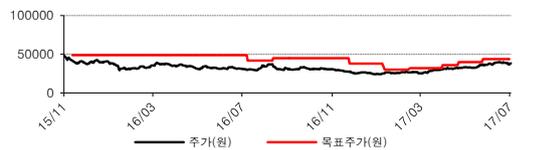
아시아나항공(020560)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추이

의견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2017-07-10	Buy	7,000
2017-05-30	Buy	6,100
2017-01-16	Buy	5,500
2016-10-12	Buy	6,000
2016-06-08	Hold	5,000
2015-11-23	Hold	5,200

제주항공(089590)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추이

의견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2017-07-10	Buy	47,000
2017-05-30	Buy	44,000
2017-04-27	Buy	40,000
2017-04-05	Buy	36,000
2017-02-20	Buy	32,000
2017-01-16	Buy	30,000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하준영)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7-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9.2%	10.8%	-